# "독재타도의 불씨, 마산에서 되살리다"

## '10 · 18 마산민주항쟁의 기억과 서울의 '궁정동 안가'

원 시 림 (소설가)

1979년 10월 17일. 이틀 동안(10. 16~17) 부산시 전역을 달궜던 '유신철폐'와 '독재타도'의 함성소리가 마산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부산과 마산은 불과 한 시간 거리인데다 통학을 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입소문으로 퍼진 부산 시민의 시위 소식은 18일 아침 경남대 도서관 앞의 나무와 게시판에 걸린 격문으로 구체화되었다. "파쇼정권 타도하자", "청년학도여 일어나라. 거리마다 우리들의 맑은 피를 뿌리자 —민청학맹—"

그렇지 않아도 10월 22일에 시위를 하려고 계획 중이던 몇몇 학생들에게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그들은 더 이상 유신체제와 장기집권 야욕, 그리고 YH사건과 김영삼 신민당 총재 제명사건 등 일련의 탄압에 대해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오후 2시 18분, 학교는 교내방송을 통해 무기한 휴교령을 전했다. 학교의 농간으로 '유신 찬성' 데모까지 벌이고, 그 때문에 전국의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 대학생 연합회'에 가입하지 못한 과거를 가슴에 품으며 치욕스러워하던 경남대 학생들은 애가 탔다. 그런 가운데 학생들은 도서관 주변을 맴돌며 누군가 시위를 주동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필자 역시 그랬었지만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1979년의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언뜻 평가절하의 오판을 내릴 소지도 있을 듯하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민주화투쟁을 반추해 보건대, 적게는 수백에서 많아봐야 5만여를 헤아리는 시민이 하루 이틀 시위한 것이 과연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인가 하는 의문 말이다. 그러나 시위 문화는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1970년에 노동자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것이 유일한 투쟁 방법이었다면, 2000년대를 사는 우리들의 투쟁은 작년 12월 미대사관을 포위했던 촛불시위나 인터넷 항의와 같은 방식으로 변모한 것이다. 다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투쟁을 통해 찾고자 하는 진실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갈증 그 자체일 터.

아무려나 필자는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되어 서슬 퍼렇던 1979년의 시대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캠퍼스 곳곳에는 사복경찰이 어슬렁거리며 학생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강의실 구석구석에까지 형사들이 배치되어 수업 내용을 염탐하던 시절, 그리하

여 시위라도 할라치면 어느새 경찰들이 몰려들어 주동학생을 낚아채 가던 시절. 연좌제 때문에 집안의 몰락까지도 걱정해야 했던 당시, 마산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정인권(당시 22세 · 국제개발학과 2년)씨는 학생들 앞에 나설 때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막상 입을 열려고 하니, 아니 죽을려고 작정하니 (…) 아아, 결국은 고독하고 쓰라렸던 나의 생이 여기서 이렇게 마감해야 하는구나, 마감해야만 하는구나"라고.

시위에 참여했던 박영주씨(현 43세 · 문창문화연구회 연구위원)의 말에 따르면 당시에는 정부에 대한 초보적인 비판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유인물만 뿌려도 잡혀가는 상황이었지요. 지금은 비판이 자유롭지만, 그 때는 술자리에서 했던 말로 고소되어 잡혀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오죽하면 '막걸리 보안법' 이란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 3 · 15의거 기념탑으로! 불종거리로!

정인권씨는 초조하게 주동자를 기다리는 학생들 앞에 나서 분노의 함성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학우 여러분! 지금 부산에서는 연 이틀동안 우리의 학우들이 피를 흘리며 유신독재에 맞서 처절히 싸우고 있습니다. (…) 자고로 자유의 나무는 피를 마시며 성장한다 했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는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뜻을 알았다면 지금부터 일어서서 과감히 나가 싸웁시다. 죽는 것쯤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나가자!"는 함성과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교문을 향해 봇물처럼 밀려내려가기 시작했다. "유신헌법 철폐하라", "군사독재 타도하자" '선구자' 와 '애국가' 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시위행렬이 전투경찰에게 막히자 '5시에 3 · 15의거탑 앞에서 모이자' 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학교 담을 뛰어넘거나 학교 뒤편 길을 통해 산복도로 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3 · 15의거 기념탑.
지금도 마산시민들의 집회 장소로 애용되는 곳이다.

불종거리. 아치형 구조물 건너 저쪽이 불종거리이다.

10 · 18 마산민주항쟁 당시 주요 타격점이요 경찰의 거점이었던 남성동파출소

부마항쟁 상징 조형물. 해운동 청소년 체육공원 내에 있는데, '해운중학교' 를 찾는 것이 제일 빠를 듯하다.

오후 5시경이 되자 3 · 15의거 기념탑 주위에는 다시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이어 학생들이 불종거리와 오동동, 그리고 수출자유지역 후문들을 돌며 거리의 시민 · 노동자들과 하나의 물결을 이루기 시작했다. 학생들로 시작한 시위가 민중봉기로 발전한 것이다. 그렇게 만여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파출소와 공공기관, 공화당사 등 유신정부의 주구들을 타격하기 시작했다. 당시 밤거리를 누비던 시위대가 외쳤던 "유신철폐"와 "독재타도" 구호 외에 "불꺼라! 불꺼라!"는 소리가 섞여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보호본능이었다고 한다. 돌이켜 보건대 최근의 시위에서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그다지 꺼리지 않는 신세대의 용기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민주화와 시위문화의 자연스런 성숙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닐는지. 그러나 그것이 어찌 과거의 희생 없이 이루어졌으랴.

박영주씨의 정리(「10 · 18 마산민주항쟁의 전개과정」)에 따르면 당시의 시위는 다음과 같은 궤적을 그린다. 시위군중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남성동파출소 외에 다른 공공기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공화당사 · 양덕파출소 방면으로 가장 먼저 진출했고, 오동동파출소를 파괴한 시위대는 불종거리로 되돌아왔고, 창동 · 불종거리 일대에서 시위하던 군중중 일부는 북마산파출소 쪽으로 진출했으며 이보다 조금 늦게 부림시장 · 분수로타리 일대의 시위대가 3 · 15의거탑을 거쳐 마산경찰서로 향했다는 것이다.

사복경찰들은 시위대인척 군중 틈에 끼어 있다가 뒤에 처져 있는 시민이나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파출소로 끌고 갔는데, 이런 방식으로 18-19일 양일간 500여 명의 시민이 체포되었다. 또 건물 옥상에서 날린 직격 최루탄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그러나 긴급조치 9호 아래에서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있던 사람들은 경찰서 앞에서 독재타도와 언론의 자유를 목청껏 외쳐댔다. 시위는 19일 경찰과 계엄군이 합동으로 펼친 총공세에 밀려 이틀간의 항쟁을 마쳤는데, 박정희 정권은 20일을 기해 마산 ·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민중의 의로운 반독재투쟁에 대해 '일부 학생

과 불순분자의 난동' 이라고 획책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시 마산민주항쟁의 주범은 정인권, 정성기, 박인준, 최갑순, 옥정애 등 다섯 명으로 짜여졌다. 그리고 마산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던 정인권씨는 10월 27일 새벽, 별관 조사과에서 '무슨 오페라같은 장엄하고 조용한 음악 소리' 가 들려왔다고 기억한다. 전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손에 의해 18년이나 이어졌던 박정희 정권의 기나긴 독재가 마침내 종말을 고했던 것이다.

### 2002년 '불종거리' 와 '부마항쟁 상징 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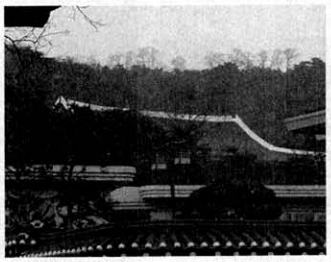
당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출감해 있던 주대환씨(현 49세, 부마민주항쟁 정신계승위원회 위원장)는 부마민주항쟁으로 다시 체포되어 중형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10 · 26으로 뜻밖의 석방을 맞았다고 회고한다. 필자가 만약에 10 · 26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고 묻자, 그는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계엄 상황이었으니까 마산지역에서 시위가 계속되지는 않았을 테지만, 전국적으로 항쟁이 확산되거나 또는 심각한 유혈사태로 치달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그렇게 빨리 유신체제가 종식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당시 항쟁의 주요 장소인 3 · 15의거 기념탑과 불종거리는 대략 1km 가량 떨어져 있다. 지방중소도시의 구시가지가 대부분 그렇듯이 왕복 4차선의 비좁은 도로에는 차들로 혼잡한데, 그나마 불종거리의 1개 차로는 주차된 차들로 만원이었다. 그 불종거리 초입에 '불종거리' 를 표시하는 아치형 구조물이 1999년 설치되어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박영주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옛날 초가로 지어진 민가와 상가 등이 모여 있던 마산의 전통적인 밀집지역인데, 화재가 잦아 불이 났음을 알리기 위한 비상종과 망루가 있던 자리라고 한다. 어쩌면 부마민주항쟁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중심지 역시 이곳이었으니, 24년 전 마

시위대의 습격으로 파괴된 마산 산호 파출소.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저격을 재현하고 있다.

10.26이 발생한 '궁정동 안가'는 1993년 '무궁화 동산'으로 조성되어 민간에 개방되었다. 공원 안쪽에 제단처럼 쌓여진 돌담 자리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무궁화동산 옆으로 보이는 청와대

산 시민의 가슴속에서 일었던 '불종소리'는 전국 민중들의 귓속으로 쟁쟁하게 퍼져나갔을 터이다. 그 아치형 구조물 한쪽에 불종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여기 민주의 함성이 빗발친 마산의 중심가 불종거리에 새로운 천년을 희망으로 맞이하려는 50만 시민의 자긍심을 담은 불종을 개항 1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

여전히 3 · 15의거 기념탑은 학생 · 노동자 · 시민단체가 각종 시위를 할 때 가장 자주 찾는 장소이고, 예전과 다름없이 불종거리와 창동 네거리 등은 상가가 밀집되어 시민들의 발걸음이 잦은 장소다. 10 · 18 마산민주항쟁 당시 주요 타격점이요 경찰의 거점이었던 '남성동파출소' 역시 그 자리에 여전한데, 육중한 외관에 자그마한 창문이 여느 파출소와 다를 게 없다. 사진 촬영을 위해 파출소 앞 사거리에서 20여 분 서성거리는 동안 옥상에 있던 의경 한 명이 멀뚱멀뚱 내려다보았을 뿐, 정작 촬영의 훼방꾼은 복잡한 거리를 오가는 행인과 차량들의 기나긴 행렬이었다.

이어 필자의 발걸음은 부마항쟁 20주년을 기념해 세웠다는 '부마항쟁 상징 조형물'로 옮겨졌다. 서산으로 해가 턱걸이한 가운데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탔으나, 해운동 청소년 체육공원에 있다는 상징물에 대해서는 정작 주변 시민들도 몰라 몇 차례나 수소문해야 했다. 그 근처에서는 오래 전에 세워졌다는 '통일기원 국조 단군상'이 더 유명하다. 상징물은 행인도 별로 없는 자그마한 공원에 검은색 대리석 사각기둥으로 세워져 있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을 무너뜨림으로써 3 · 15의거에 이어 민주성지 마산의 영원한 혼이 된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나가고자 이 조형물을 세웁니다". 3m 가량의 상징물에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두 손이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는 암울했던 군사독재 체제하의 억압과 혼돈,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민중들의 열망을 표현한 것이라 한다. 해운동 청소년 체육공원은 원래 바다였던 곳을 매립해 조성한 공원으로, 매년 10월 18일 이곳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당시 항쟁을 했던 거리에 세우고 싶었지만

교통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곳으로 밀려났다는 설명이다. 과거는 현재에 치이고, 추억되지 않는 기억들은 구석으로 밀려나는 법인가. 필자는 어둑어둑해진 공원에 홀로 섰다가 서울로 발을 돌린다.

### 10 · 26과 '궁정동 안가' 그리고 '무궁화 동산'

부마민주항쟁은 "8 · 90년대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에서 조직적인 시위등의 모태가 되었다"는 것이 박영주씨의 해석이다. 또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역시 부마민주항쟁과 민주화운동사적으로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아무튼 계엄군의 진주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부마민주항쟁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는 이른바 10 · 26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마산 답사 뒤에 주대환씨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부마민주항쟁 관계자들은 김재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민주화를 앞당기고 유신체제 종식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김재규와 당시의 민주화운동 세력간에는 전혀 유대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저 정권 내부의 분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10 · 26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당시 '궁정동 안가(안전가옥)' 의 대행사(시중드는 여자가 있는 대통령의 술자리를 의미하는 은어)에는 박정희 대통령, 김계원 비서실장, 차지철 경호실장, 그리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등이 배석해 있었다고 한다. 이중 박정희와 차지철은 당시의 총격으로 사망했으며, 김재규는 이듬해 5월 24일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또 10 · 26은 12 · 12사태, 즉 신군부 세력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는 데 빌미가 되었으며, 이러한 사건 수습 과정을 통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정권을 찬탈하는 기회로 십분 활용하였다. 아무튼 김재규의 10 · 26은 '내란목적의 살인혐의' 로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외에도 10 · 26의 동기로는 '우발적 확대설' 과 '미국 CIA의 사주설' , 그리고 김재규 본인이 주장하는 바 '민주혁명 회복' 등의 여러 설이 있다. 진실은 분명 하나일 테지만, 아직까지도 의혹들은 끊이지 않는 듯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더더구나 죽은 자의 심중을 제대로 알 길이란 설령 귀신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10 · 26의 현장인 궁정동 안가는 오랫동안 민간인의 접근이 금지되다가 1993년 '무궁화 동산' 으로 조성된 뒤 민간에 공개되었다. 경복궁 왼편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다가 청와대 앞 분수대를 끼고 좌회전하면 바로 앞쪽으로 보이는 지름 100m 가량의 자그마한 원형(圓形)공원이다. 그 앞 표지석에는 "이 공원은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청와대를 국민과 더불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신 뜻을 받들어 안가(안전가옥)를 헐어내고 조성한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바닥에 깔린 보도블록이 태극모양으로 깔려 있는 공원 안쪽에 제단처럼 쌓여진 돌담이 있는데, 그곳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장소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원 어디에도 10 · 26 사건을 알리는 표지나 안내판은 없다. 근처에 산다는 초등학생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기에 그런 사실을 아느냐고 물으니, 아이들은 무슨 소린가 하는 표정으로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만 가로 저었다.

제단 모양의 돌담 앞에는 무궁화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그 위와 뒤쪽에는 소나무와 대나무들이 심겨져 있다. 무궁화 공원 내에 두어 명의 사복경찰이, 그리고 청와대 앞쪽 분수대와 담 옆으로 난 도로 쪽에도 드문드문 경찰들이 서서 근무에 열중이다.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가운데 근처에서 나온 듯한 아주머니 몇 명이 태극모양 바깥쪽으로 난 소로를 돌며 조깅을 시작한다. 조용하다. 참 조용해서, 쓸쓸하다. 사람들의 삶이란 참 가볍고, 역사란 또 얼마나 묵중한가.

원 시 림

소설가. 1972년 충북 제천 출생. 1999년 〈진주신문〉 가을문예와 2000년 〈작가세계〉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 발표작으로 「기둥」, 「용꿈」, 「믹스언매치」, 「소멸의 흔적」 등이 있음. wonsilim@korea.com